

2학년 4반 4월 독서토론

조이름 : 사회적 직업

조장 : 김혜림

조원 : 이윤정, 홍세민

도서명	행우새 죽이기
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	
인터넷에서 토론 추천서를 검색하던 중 이 책을 보게 되었다. 전 세계적으로 절찬리에 팔린 책인 만큼, 여기까지 올 것도 만능일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.	
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윤정 : 구절은 X, 틈이 죽는 부분 ↳ 모두가 틈이 무죄라는 것을 알지만, 사회적 위치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잔혹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충격적이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.• 세민 : “네 나이 때는 말야...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 있다면, 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가? 그들이 서로 비슷하다면, 왜 그렇게 서로를 정면하는 거지? 스카웃,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왜 북 래들이 지금까지 내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..... 그건 말이야, 아저씨가 집안에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야.” — 정 ↳ 어른들도 틈의 유죄가 부당한 판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는 것을 보여, 심지어 혼란을 겪고 난 정이 심정을 묘사한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• 혜림 : “거트루트, 생뚱쑥한 감동이보라 더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건 없어.” — 머리위더 아줌마. ↳ 인종차별이식이 뿌리속 깊이 파고든 백인의 말을 앞었을 때, 그 당시의 백인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,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 봤다. 아마 이 가정은 사실일지도 모른다.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관습이 여러 사람들을 망치는 것 같아서 슬펐다.	

- 세인: 알렉산드라 고모아 선과이 회원들이 집에서 다라회를 하며 얘기를 하는 장면
↳ 그 장면에서 나온 대화의 주제가 ^{정교적요소}정리~~정교~~적요소가 들어가 있어서
그 당시의
이해하기 어려웠다.
- 윤정: 아버지는 보름 뜨고 언배비 방으로 가셨다. 아마 방새도록 그 방에 계실것이다. 그리고 언배가
아침에 깨어날 때에도 역시 그방에 계실것이다.
↳ 오네 아버지가 아침에 오배가 깨어날 때까지 그 방에 있을것이라고 예측하는것인지
모르겠다.
- 혜림: 선생님은 캄으로 귀여운 분이셨다.
↳ 책속에서 캐롤라인 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형식과 행동들을 하는 아이만 좋아한다.
그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도 한다. 그런데 태 반아가 선생님을 귀여워하느니 모으겠다.

전체적으로 느낀 점

- 세민: 당시의 인종차별을 잘 드러낸 작품이었기 때문에 인상깊었다.
- 윤정: 잘못된 편견은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, 잘못된 사회는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.
- 혜림: '하퍼 리' 라는 작가의 대표작인 앵무새 국이기를 읽게 되어서 좋았다.
작가가 인종차별국이에 대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고, 당시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
잘 알아볼 수 있었기 같았다.

• 세민! 유색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.

• 윤정! 내가 몰랐던 느낀것을 맹목적으로 몰랐다고 말하지 말고, 다른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겠다.

• 혜림!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인종차별을 직접접적으로 느낄수 있어서 좋았다.
나중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다른 작품으로 읽어보아야겠다.

조장이 하고 싶은 질문 & 총평

<질문>

- 왜 제목이 <앵무새 죽이기> 일까?
- 영화와 소설 내용이 일치할까?
- 어떻게 인종차별의식이 생겨났을까?

<총평>

- 혜림: 왜 성경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지 알 수 있었다.
필독서!
- 윤정: 문라 필독서라고 해서 찾아봤는데, 기대만큼 좋은 강연이 인상깊은 책이었다.
- 세민: 등겨워서 읽기 어려웠지만, 재밌었다.